

사설

절마다 잠자는 성보찾자

조계종 총무원이 성보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해 온 해인사·월정사 성보문화재 실태조사가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꼬박 1년이나 걸려 나왔다. 전례가 없었던 이런 조사를 의뢰한 용단도 용단이려니와 그로 인해 햇빛을 보게된 많은 성보들이 쏟아져 나왔다니 기쁘고 기쁜 일이다. 발굴된 3350점의 성보문화재중 국내 최고의 고려평상복이 있는가 하면 보살상이 있는 광배의 희귀한 불상도 있다고 한다. 국보나 보물급의 값진 성보문화재들이 많이 섞여 있다니 전국적으로 조사를 마친지 얼마 안 되어 많은 성보를 찾을 수 있을지 하고 흥분마저 있다.

그동안 각 사찰에 묻혀 그 진가를 알지 못한채 더러는 도굴꾼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더러는 허술한 보관으로 본의 아니게 유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던 성보도 없지 않았을테니 돌이켜보면 이번과 같은 조사사업이 만사지탄의 길이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월정사와 해인사의 분말사를 시작으로 성보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리를 서두른 것은 거듭 경하해도 넘치지 않는 일이다. 차제에 성보의 체계적인 정리와 보관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인 체계적인 조사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마무리 하기를 제안한다. 조계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성보, 특히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모든 성보를 장단기 계획을 세워 조사 연구되어야 한다. 성보는 일차적으로 불교적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더 넓게는 우리 민족 모두의 성보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 말은 특정 종교의 소유물이라기 보단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민족의 유산임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조사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두번째로는 각 사찰의 분말사들이 조사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찰에 있으니 우리가 잘

보관하면 된다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잘 보관하고 하는 정신은 있다고 하더라도 보관 관리하는 전문 지식이 없다면 이는 오히려 성보를 망치는 일도 된다. 적극적인 조사 연구가 선행된다면 앞으로 성보문화재의 소재나 행방이 보다 투명하게 될으로써 도굴이나 훼손 그리고 유실과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투명성은 결국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종교적 성보로서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속에 친근하게 함께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성보의 보관과 전시 또는 종교적 활용을 위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성은 사찰의 개개 단위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을테니 종단 차원에서 지도적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전문적인 보관과 전시 또는 성보문화재의 복원과 유지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단지 그 성보를 보관하고 있던 사찰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국가적인 예산을 규모있게 투자할 것을 권한다.

네번째로는 성보문화재들이 보다 국민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이나 연구자들에게만 정보가 독점되어져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에게 친근히 다가올 수 있는 성보라야 살아있는 성보이지 그렇지 않고 폐쇄된 상태의 성보라면 성보로서의 가치를 잃은 바위에 불과할 것이다.

끝으로는 종교적인 불사가 여러가지이고 또 화려한 것도 많겠지만 이번과 같은 성보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를 불사의 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불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불사로 이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성보문화재 정리와 발굴을 위한 거국적인 운동으로 번져가도록 초월적인 자세를 갖도록 권해본다.

열린마당

'97 대선과 불교계

종교와 정치 '人間苦' 해결 목적 같아

윤세원 (인천전문대교수·정치학)

인간문제, 즉 고(苦)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가장 포괄적인 것은 정치라 할 수 있다. 종교와 정치는 근원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위해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

불타의 가르침은 근본교의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회교의 제거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교의 제거를 위한 불타의 가르침은 바로 정치에 대한, 혹은 정치의 궁극적인 목

표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불타는 오계의 바탕 위에 공정심, 지혜, 도덕성, 규율, 신앙심 등을 강조했다(대반열반경). 또한 정치는 강제력의 행사가 수반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통치자에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통치자의 성격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륜성왕사자후경>에는 통치권력은 통치(資質)와 통치 내용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며, 통치자의 일차적인 직무는 오계를 지키는 도덕적 사회 건설이라고 되어 있다.

통치자의 자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현실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불타의 모든 가르침은 고의 해결방법으로 일관되어 있다. 근본교의 해결방법이 좁은 의미의 종교적 가르침이라면, 사회교의 해결방법은 정치적 가르침이고, 이 둘은 하나의 근본원리 위에 있는 것이다. 불타의 정치적 가르침은 모든 종류의 고(苦)로부터 원천적인 간해방이라는 원대한 이상의 실현을 위한 종교적 영역의 확충이며, 또한 정치적 가치를 종교적 영역에까지 승화시키는 통로이다.

"중립시켜 정의사회 대안 제시하자"

손혜재 (열린사회연구소장)

불교계는 대통령선거를 강 건너 불보듯이 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중생이 얕으므로 나도 얕는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선에 대한 관심과 대비방법으로는 지난 92년 선거에서 불교계의 일부 단체와 불교인회 등이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본다. 그 당시에는 각 후보의 공약을 일방적으로 들어보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 공약을 비판

가능할 것이다. 불교계만의 이익을 위한 공약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또 불교계는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없이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자칫 권력의 불교 간섭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바른 대통령 만들기운동이나 부정선거 감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불자대

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지 않다. 물론 불자대통령의 탄생으로 불교계가 확산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선불자 불자대통령이나 불교의 확산을 꾀하는 것은 자칫 불교를 통속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5대 대통령선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불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5대 대통령이 일어나갈 21세기에 불교의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불교계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교와 대선.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 불교계에 주어진 화두이다. 조계종중앙총회(의장 설정)와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은 지난 6~7일과 4일 각각 총회의원 연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총회의원연수에서 발표된 윤세원교수(인천전문대)의 '종교와 정치', 전불련 정책토론회 발제문인 손혜재씨(열린사회연구소장)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과 토론 내용을 통해 불교계가 어떻게 대선을 준비하고 맞을 것인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지난 4일 '불교계, 대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전불련 정책토론회.

전불련 '대선 어떻게...' 토론 요지

불교이익 넘어 국익우선 후보 선택 특정 정당 지지하는 구태 벗어나야

전불련이 지난 4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불교계, 97대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종단 개혁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데 모아졌다. 아울러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교계의 지도급 스님들이 특정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는 구태를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신도들이 타종교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은 불교를 주요한 표방으로 인식한다.

○... 대표적인 예가 92년의 '상무대 비자금 80억원'이다. 정치인들은 돈으로 불교표를

모으는 구태를 유해도 반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에 이번 대통령선거는 종단개혁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평가하는 리트머스용지인 것이다.

○... 불자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불교의 이익만이 아닌 민족적, 국가적 이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노태우 씨가 불자라 하여 많은 불자들이 지지하였지만, 노씨의 모습은 전혀 불자로서의 행동이 아니었고, 그 결과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 있다.

○... 불자들의 선거에 대한 주요 판단이 불교의 이해에 근거하기보다는 민족의 통일과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누가 앞당길 것인가 등 민족의 장래에 근거해야 한다.

현대만평

현대만평



농지법 개정하라!

737-0691

옛날에 기로(箕老)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에는 60세 넘는 노인을 내다버리는 국법이 있었다.

효성이 지극한 한 대신은 아버지를 차마 버릴 수 없어 땅속에 밀실을 만들어 남몰래 봉양했다.

어느날 힘이 센 이웃나라 국왕이 뱀 두마리를 보내면서 말했다.

"7일동안 암수를 구별하지 못하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왕은 발발 떨며 대신들과 의논했으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를 땅속에 모신 대신은 집에 돌아와 혼자 애태우고 있었다.

부친이 물었다. "나를 숨긴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러느냐."

"아니옵니다." 아들은 사연을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솥위에 밥을 올려 놓고 보아라. 나대는 놈은 솥눈이고 암

목어

전하게 있는 놈은 암놈이구나." 아버지의 지혜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트집끼리를 만들려는 이웃나라는 색

아버지의 가르침

같이 갈고 몸집이 같은 두 마리의 암말을 보냈다.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라는 것이었다. 암은 전국에 포고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대신은 다시 아버지에게 해결방법을 구했다.

"말을 하루쯤 풀었다가 풀을 먹여라. 어미말은 반드시 풀을 새끼말에게 밀어

줄 것이다."

강국인 이웃나라는 모두 6번의 질문을 했으나 작은나라에 지혜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매일 참선으로 자기를 닦는 원로 철학자 高亨坤(92)이 아들인 신일 高建 총리에게 일러준 '牧民官 3계'가 화제가 되고 있다.

'돈을 받지 말라.' '술을 잘 마신다는 얘기를 듣지 말라.' '누구 사람이라는 말이나 오지 않게 하라.'

'어려운 시절'의 재상자리 뒤에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아들의 실천이 있었다.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들은 가정교육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하는지 되새겨 보자.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좌 전문의 불교공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 사교과
 -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 경전강독
 - 교양요식
 -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우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6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정진과 개혁으로 민족과 함께 세계속으로

한민족 불교 중흥회 창립대회



문명 전환기적 현실에서 한국불교는 창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와 한민족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정진과 개혁으로 민족과 함께 세계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불교중흥회 회원여러분께서도 창립대회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불기 2541년 3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조계사 대웅전

- ▶ 연락처 · 한민족불교중흥회 (02)720-1656, 738-8081
- 집행위원장 정 넘 상원사 (0374)32-6666

한민족 불교 중흥 창립 준비 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종로 B/D 3층 전화: 720-1656, 738-8081 F.720-1657